

외국인 관련단체 ③ 대한성공회 외국인노동자 살림의 집

#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認定해야

##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 갖지 않도록 배려해야

대한성공회 외국인 노동자 살림의 집(담당 이종민 신부)을 이용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 이집트 등 10여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로, 이들 중 50%는 신분이 불안정한 불법체류자들이다.

이들에게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임금, 산재와 관련 상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고 멀티미디어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한글교실도 열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며 외부 나들이도 함께 하고 있다.

이종민 신부는 임금체불상당에 대해 "포천지역에 있는 업체가 영세하다보니 기업이 어려우면 외국인 노동자 월급이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과실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면 작업지시를 했을 경우,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작업지시 불이행으로 낙인찍히고 회식자리에서 축복적으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살림의 집에서는 현재 3명의

외국인노동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중 1명은 스리랑카 사람이다. 스리랑카 사람은 자기 일을 하면서 통역상담은 물론 현지 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때 걸치레형식보다는 그들의 주거문제, 기업주 교육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민으로 봐 주어야 한다.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기업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정도 큰 문제다. 갑작스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가다가 2~3년 사이에 20~30명이 사망했다.

고용허가제도 마찬가지다. 3년 동안 고용을 허가하고 그 이후에 본국에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남게 된다.

그런데 3년은 이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1년 동안 일해서 빚을 갚고 2년 동안에 돈을 벌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남게 된다.

포천시에는 1만 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살고 있다. 전체인구의

7~8%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포천시는 포천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똑같은 시민으로 대접해줘야 한다. 각종 서비스를 받으려면 매우 불편할 텐데 이같은 포천시 문화를 바꾸고 싶다면 하는 바람이다.

포천시민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 무조건 반말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도 어 느 정도 한국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다. 좀 더 친절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같은 반말은 인종차별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반한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자기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으로 내몰 경우 있는데 이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고 한국을 미워하는 계기가 된다. 이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이종민 신부는 지역신문의 할 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은 물론이고 이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조

명하여 우리사회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비록 불법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도 그들의 삶을 가명을 써서 조명해준다면 분명 새로운 방법과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가 아쉽다.

이 신부는 외국인 공동체 대표들의 삶의 이야기를 취재하여 보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살림의 집은 앞으로 지역 문화 바꾸기, 이주여성(국제 결혼여성)문제 등에 있어 포천시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제 세계는 다민족 사회로 가고 있다. 노동력만 제공하려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다양화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인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교육인프라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추천! 이야기 한마당** 열어보지 않은 선물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하나 그것을 열어봅니다.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내 눈과 귀와 손끝이 발걸음이 그것을 좋아하면 기쁨이라는 선물이 될 것이고, 사랑이라 느끼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열면 그것은 불평과 불만의 선물이 될 것이고, 격정과 후회의 마음으로 열면 그것은 당신에게 힘들고 괴로운 날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 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그것은 당신에게 스스로 내용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사랑과 기쁨의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름과 대답이 있는 삶’ 중에서)  
(문의 011-342-5834)

**‘희귀난치병 환자 도와주세요’**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 50만원 전달

희귀난치병인 지방이영양증(지방이 급속도로 소모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김희정(21), 김윤정(20) 자매에게 사랑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포천시 군내면에 살고 있는 이들 자매는 원인과 치료법을 알 수 없는 희귀난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서 50만원을 전달하고 쾌유를 기원했다.

이날 김종현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고문과 박순복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갖고 애로사항 등을 듣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에게 도움의 손길을 각계 각층에 호소하기로 했다.

20인의 당초치료를 위해 필요한 인술원을 매일 맞이하는 이들 자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치료약을 감당할 수 있는 성금이다.

또 이들이 음식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식사하는 것도 힘들다며 반찬을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정확한 병의 원인과 치료대책이 없이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자매를 돕기 위한 풍장도 개설되어 있다.

(계좌번호: 우체국 103192-02-037748 예금주: 김희정)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영중면, 사랑과 희망의 쌀독

## 포천로타리클럽 회원 사랑가득 담아 전달

"영중면! 사랑과 희망의 쌀독에 점이 넘쳐납니다. 집안에 쌀이 떨어졌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중면사무소 안에 설치된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쌀독(위주)'은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하고, 사랑의 쌀도 연중 후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이면 누구나 쌀을 퍼갈 수 있도록 했다.

이 쌀독을 설치한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 양주승 위원장은 "최근 경제성장 저조, 실업난, 고유가 등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져 개인과산자가 급증하는 등 가족해체에까지 이르고 있어, 이번 사랑의 쌀독을 통해 가정 생활환경이 어려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한 넉넉한 주민에게는 언제나 쌀을 가져와 쌀독을 채워 넣을 수 있어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풍토를 조성함과 더불어 사는 밝은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월26일 11시30분 포천로타리클럽(회장 양주승) 회원들이 쌀 20kg 3포대를 이웃 나눔의 쌀독에 전달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로타리클럽 박순복 회장 회원들이 1월26일 영중면사무소에 설치된 나눔의 쌀독에 쌀을 전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민주노동당,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

민주노동당 포천시위원회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유병권)는 정부가 1월4일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입법청원인 모집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가표준안을 만들고, 카드사들은 자발적으로 영세사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신용카드사들의 반발로 벌써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워지고 있다. 법과 제도의 정비 없이 신용카드사들의 허울 좋은 자율에 의지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기실 생산가게를 고요이에게 맡기겠다는 지난친 순진함이거나, 대선을 앞두고 영세 상인들이

달래기 위해 빠른 순진함을 가장한 정치적 생색내기 카드에 불과하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정비를 위해 영세 상인들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입법청원인 모집운동에 돌입한다.

민주노동당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원가 산정기준 법제화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철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는 입법방향을 가지고 전국 각지의 영세 상인들이 입법의 주체가 되도록 입법청원인 모집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종현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고문과 박순복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희정(21), 김윤정(20) 자매에게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서 50만원을 전달하고 쾌유를 기원했다.

# 골판지 포장 BOX 생산전문

**생산품목**

내수용, 수출용, 식품용, 공업용, 농산물, 가구 등

**박스종류**

골판지박스, 톱슨박스, 컬러박스, 종이박스

**은창수출포장(주)**

대표이사 이희선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2리 645-3  
Tel. 031)534-5753 Fax. 031) 533-5759  
www.eunchang.co.kr